

2018년 7월 20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차익 실현과 트럼프 발언으로 하락 트럼프, 연준의 금리인상은 미국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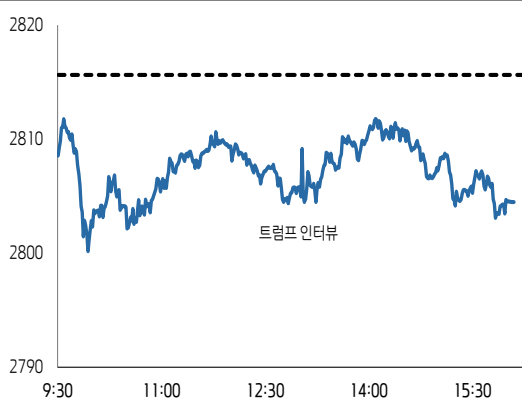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일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 다만, 실적 기대감이 여전하고, 경제지표 또한 양호한 결과를 발표한 데 힘입어 하락폭은 제한. 한편,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자 하락폭이 좀더 축소되기도 했으나, 연준의 통화정책까지 개입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유입되며 재차 하락하는 경향(다우 -0.53%, 나스닥 -0.37%, S&P500 -0.40%, 러셀 2000 +0.56%)

미 금융시장은 ①기업들의 실적 발표 ②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비판 발언 여파로 변화. 미 증시는 하락 했는데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추정. 이는 2 분기 실적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 이를 감안 실적 개선폭이 크거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지 않은 기업들은 차익 매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모습.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2 분기 기업들이 개선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0.3% 하락했다고 발표. 이는 5 년 평균(+1.0%)을 하회. 예상 부합(-1.9%), 어닝쇼크(-4.7%) 때도 5 년 평균(-0.8%, -2.5%)을 크게 하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발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에 대해 비판.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금리인상 같은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 더불어 “금리인상 기조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수출품이 더 비싸진다” 라고 주장. 또한 “ECB, BOJ 등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데, 연준은 금리인상을 하고 있어 미국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라고도 언급. 한편,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사람이지만,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라며 언급. 일부에서는 파월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대해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비판한 데 따른 트럼프의 반발로 해석.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달러화가 한 때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로 전환하며 외환시장에 영향. 더 나아가 트럼프가 통화정책에 대해 개입하자 향후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주식시장과 국채금리도 하락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82.29	-0.34	홍콩항셱	28,010.86	-0.38
KOSDAQ	796.49	-1.72	영국	7,683.97	+0.10
DOW	25,064.50	-0.53	독일	12,686.29	-0.62
NASDAQ	7,825.30	-0.37	프랑스	5,417.07	-0.56
S&P 500	2,804.49	-0.40	스페인	9,721.10	-0.33
상하이종합	2,772.55	-0.53	그리스	766.64	-0.92
일본	22,764.68	-0.13	이탈리아	21,885.40	-0.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대형 기술주 부진

JP모건(+1.47%), BOA(-1.53%), 씨티그룹(-1.23%) 등 금융주는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를 비판하자 하락 했다. 한편, 다수의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IBM (+3.27%)은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상승 했으나, 여타 기업들은 매출이 출회되며 하락세를 보였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2.73%), 이베이 (-10.12%), 트레블러스(-3.71%), 필립모리스 (-1.52%), 도미노 피자(-2.44%) 등은 하락 했다. 알파벳(-1.14%), 페이스북(-0.61%), 아마존(-1.63%) 등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콰이크스트(+2.56%)는 21세기 폭스(-0.26%) 인수 포기를 선언하자 상승 했다. 디즈니(+1.30%)는 폭스를 인수하며 향후 비디오 스트리밍 시즌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반대로 넷플릭스(-2.91%)는 디즈니와의 경쟁이 심화 될 수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하락 했다. 넥스테라에너지(+0.49%), 듀크에너지(+2.93%) 등 유틸리티와 SPG(+1.90%), 리얼티 인컴(+1.53%) 등 리츠금융사는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52%	대형 가치주 ETF	-0.32%
에너지섹터 ETF	-0.62%	중형 가치주 ETF	+0.17%
소매업체 ETF	+1.10%	소형 가치주 ETF	+0.72%
금융섹터 ETF	-1.50%	배당주 ETF	+0.23%
기술섹터 ETF	-0.36%	변동성 ETF	+1.83%
소셜 미디어업체 ETF	-1.12%	대형 성장주 ETF	-0.26%
인터넷업체 ETF	-1.12%	중형 성장주 ETF	-0.02%
리츠업체 ETF	+0.95%	소형 성장주 ETF	+0.65%
주택건설업체 ETF	+0.93%	신흥국 고배당 ETF	-1.33%
바이오섹터 ETF	+0.10%	신흥국 저변동성 ETF	-1.05%
헬스케어 ETF	-0.56%	하이일드 ETF	-0.06%
곡물 ETF	+0.23%	물가연동채 ETF	+0.14%
반도체 ETF	-0.33%	Long/short ETF	+1.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5.37	-0.02%	-1.00%	+0.15%
소재	366.75	-0.61%	-0.09%	+0.41%
산업재	626.09	-0.07%	+1.59%	+1.64%
경기소비재	896.45	-0.21%	+0.25%	+0.24%
필수소비재	538.98	-0.13%	+0.12%	+2.55%
헬스케어	1,005.30	-0.55%	-0.40%	+2.11%
금융	456.69	-1.44%	+1.55%	+0.80%
IT	1,275.85	-0.33%	-0.01%	+1.19%
통신	146.92	-1.10%	-2.10%	+1.41%
유틸리티	267.08	+0.93%	+0.27%	+4.83%
부동산	202.41	+1.01%	-0.92%	+2.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1.40%, MSCI 신흥 지수도 1.2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208 계약) 여파로 0.15pt 하락한 295.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5.1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자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무역분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더불어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한발 물러설 것으로 전망 된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난 5 일 트럼프 대통령이 2 주 안에 16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발효 할 것이라고 언급 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8 월로 연기 되었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세 발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이는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관련 소식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백악관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서둘러 발표 한 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지표가 양호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다음주는 알파벳, 아마존 등 미국의 대형 기술주 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의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부분 실적 추정치가 양호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하락폭이 확대된 다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지표 개선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19.9) 보다 개선된 25.7 로 발표 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 수주가 전월(17.9) 보다 크게 개선된 31.4 로 발표되며 개선세를 견인 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21 만 5 천건) 보다 감소한 20 만 7 천 건에 그치는 등 여전히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되며 엔화 강세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200만 배럴 증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 규모가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 다만, 노르웨이 유전 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 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지수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해 비판을 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로 전환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백악관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언급 하자 재차 강세로 전환 했다. 엔화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 신흥국 환율은 대부분 0.5% 내외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경제지표에 기반해 상승 출발 했다. 이후 주식시장 약세로 하락 전환했다. 한편, 오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 비판했으나 변화는 제한 적이었으며, 대체로 하락세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은 달러 지수가 오전에 강세를 보인 여파로 하락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달러가 약세로 전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축소되지는 않았다. 구리는 달러 강세 및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히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주며 하락 했다. 여타 비철금속 또한 동반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1%, 철근도 0.10%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9.46	+1.02	-1.24	Dollar Index	95.216	+0.14	+0.41
브렌트유	72.58	-0.44	-2.51	EUR/USD	1.1644	+0.04	-0.24
금	1,224.00	-0.32	-1.81	USD/JPY	112.46	-0.35	-0.08
은	15.402	-1.10	-3.60	GBP/USD	1.3014	-0.42	-1.45
알루미늄	2,001.00	-1.28	-2.01	USD/CHF	0.9991	+0.01	-0.33
전기동	6,065.00	-1.38	-2.62	AUD/USD	0.7357	-0.55	-0.69
아연	2,545.50	-2.10	-1.38	USD/CAD	1.3258	+0.67	+0.79
옥수수	365.00	+1.11	+1.60	USD/BRL	3.8394	-0.23	-1.09
밀	504.25	+1.97	+4.08	USD/CNH	6.7935	+0.71	+1.50
대두	861.50	+0.44	+1.44	USD/KRW	1133.20	+0.08	+0.65
커피	108.80	+0.60	-2.47	USD/KRW NDF 1M	1135.10	+0.39	+0.9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40	-2.93	-0.55	스페인	1.278	+0.20	-0.40
한국	2.540	+1.00	-0.70	포르투갈	1.744	-0.60	+0.30
일본	0.042	-0.30	+0.20	그리스	3.842	+0.40	-0.80
독일	0.330	-1.20	-2.70	이탈리아	2.502	0.00	-11.80